

# 『紅樓夢』과 『沈香屑：第1盧香』의 거주 공간 소고\*

- 情景論을 중심으로

梁春姬\*\*

< 목 차 >

1. 중국문학이론에서의 情景論
2. 시기의 情景론으로부터 『紅樓夢』과 『沈香屑：第1盧香』 거주 공간묘사
3. 『紅樓夢』과 『沈香屑：第1盧香』의 거주 공간의 특징
4. 결론

## 1. 중국문학이론에서의 情景論

정경론<sup>1)</sup>은 중국의 역대 문론의 핵심논제의 하나로써 중국의 역대의 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흥미진진하게 담론하였으며 부단히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왔다.

본문에서는 창작과정에서의 ‘감정’과 ‘경물’의 관계와 정경융합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sup>2)</sup>

\* 이 논문은 2007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1) 郁沅은 『論情景組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情有三个層面, 卽生理情感, 倫理情感, 審美情感。生理情感是人的自然机制的心態表現, 靠人的感官直接產生的, 是倫理情感和審美情感的基础, 這種靠直接感官而產生的情感, 如果一味放任自流, 就會導致人際關係緊張, 社會混亂等不良結果, 因此必須以倫理情感來約束它, 也就是把生理情感升到倫理情感的高度, 其核心是以禮儀之道來規範自然情欲, 使每一个社會成員的自然情欲(生理情感)只能在各自應有的各分內得到滿足。審美情感則是在這兩個情感的基础上而形成的。再說‘景’。漢代以前, ‘景’是指太陽光亮。至六朝晉宋, 轉爲自然風景。到唐代其含義擴大爲文學作品中的山水景物描寫。明清王夫之, 王國維那里, ‘景’又可泛指一切客觀存在, 以及文學作品中的形象圖景。本稿所討論的‘情’是生理情感, 倫理情感, 審美情感的總合。‘景’則是文學作品中的一切形象景圖。”

2) 情景論은 위진남북조시기에 육기의 『文賦』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후대에 이르러 梁朝의 劉勰과 鍾嶸, 唐代的 皎然·王昌齡·權德輿·司空圖 등, 宋代的 李仲蒙·葉夢得·姜夔·

본문은 창작과정에 대한 많은 문인과 학자들의 이론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괄하려고 한다.

먼저 창작과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1.1 여러 학설들은 창작 준비단계에서 작자 본인의 ‘감정’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정서적 준비<sup>3)</sup>’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경융합의 경지를 창조하려면 반드시 창작 전에 수시로 분출할 수 있는 정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본문은 이러한 정감 준비를 ‘정서적 준비’라고 하였다. 이는 어떤 특정적 대상을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닌 작자 자신의 정서이다.

1.2 이러한 정감이 적당한 ‘경물’이 없다면 표현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경물’은 자연적 환경을 말하며 문자로 표현한 작품 속의 ‘경물’이 아니다. 작가의 정서도 대상을 통하여서만 구체적 사실로 확정되며 작가의 주체적 정서의 영향을 침투하여야 생동감을 갖추게 된다.<sup>4)</sup>

1.3 ‘경물’은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객관적인 매개물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방

周弼, 明代的 陳嗣初·謝榛·李贄, 清代的 李漁·王夫之·王國維 등이 있는데, 모두 情景論에 대하여 각 방면의 논지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저작들은 대부분이 창작과정중의 情景論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情景論이 작품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3) 劉勰은 인간의 七情이 없다면 感物할 수 없고 吟志할 수 없다고 하였다. 宋代的 范文은 경물을 마주 대할 때 만약 情이 없다면 감흥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明代 李贄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응어리진 정감이 없다면 ‘見景生情’ 할 수 없고 어떠한 글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4) 陸機는 『文賦』에서 말하길: “遵四時以嘆逝, 瞻萬物而思紛, 悲落葉於今秋, 喜柔條於芳春。心懷懷以懷霜, 志渺渺而臨云。” 陸機는 사계절 자연물상의 변화 묘사를 통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해냈으며, ‘景’의 정감에 대한 작용을 강조하였다. 劉勰은 『文心雕龍·物色』에서 말하길: “春秋代序, 陰陽慘舒, 物色之劫, 心亦搖焉…… 歲有其物, 物有其容, 情以物遷, 辭以情發。一葉或迎意, 出生有足引心。” 劉勰은 자연경물의 변화는 인간의 정서 변화를 야기시키며 ‘物色相召’이라는 상황에서, 작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劉勰은 사물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마음이 움직이는 심리과정을 “정이 사물에 의해 전이된다”고 하여 정감은 사물에 의해 생성된다고 하는 情景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唐代 皎然是 『求日遙和盧使君』에서 말하길: “詩情緣境發, 法性寄筌空。” 唐代 皎然是 情思는 외부 사물에 의해 촉발되어 생겨난다고 여겼다. 明代 李贄이 말한 “一旦見景生發” 역시 작품에서의 情景융합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여러 문인들의 관점은 모두 景은 情을 촉발하는 외부조건이다. 宋代 葉夢得은 『石林夢話』에서 말하길: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 이 말은 바로 “無所用意, 猝然與景相遇, 借以成章。”이라는 말과 같다. 그는 情은 景으로부터 나오는 우연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謝靈運 시구의 오묘함은 “無所用意, 猝然與景相遇”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情과 景의 우연히 만나 결합하여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여겼다.

법이다. 이를 본문에서는 ‘경물 빌리기’라고 이름 하였다. 깊은 감정을 가진 자만이 경물을 능란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감정도 반드시 구체적 대상을 통하여서만 표현된다. 하지만 ‘경물 빌리기’에서 말한 ‘경물’은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생활에서의 경물이 아니라 작가의 머리 속에서 취사선택을 거친 후의 ‘경물’이며 작가의 ‘감정’을 표현한 ‘경물’이다.<sup>5)</sup> 이외 여기서 말하는 ‘감정’도 작가가 직접 표현한 ‘감정’이 아니며 창작 준비단계의 ‘감정’과 구별되는 문자화된 ‘감정’이다.<sup>6)</sup>

‘경물’이 작품의 ‘감정’의 매개로 될 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표현방식이 있다.  
1) 순수 ‘경물’묘사 2) ‘감정’과 ‘경물’의 조합. 다만 순수 ‘경물’묘사도 그 목적은 ‘감정’표현에 있다.<sup>7)</sup>

1.4 작품의 정경융합 효과는 작자의 절실한 감정을 표달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감정표출’이라고 명명하였다. 왕국유는 문학작품의 경물묘사의 최고의 경지는 ‘불격’이라고 하였다. ‘불격’이란 바로 “글 속의 언어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경지이다.<sup>8)</sup> 경물을 묘사할 때 반드시 감동을 주는 면을 부각하여 실제적인 경물과 완전한 융합을 가져와야 한다. 즉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감정을 표달하여야 한다.

## 2. 시가의 情景론으로부터 『紅樓夢』과 『沈香屑：第1盧香』 거주공간묘사

정경론은 중국의 시가이론에서 시작하였고 시가연구에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비단 그 문론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창작에서도 많

5) 王昌齡 『詩格』：“事須景和意相兼好。若一向言意，詩中不妙及無味。景語若多，與意相兼不緊，雖理通亦無味。” 그는 여기서 ‘景’은 작품속의 ‘景’일뿐이지 결코 대자연속의 景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6) 여기서 우리는 작자의 문자운용능력 및 문화수양, 경험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매체역할을 하는 ‘情’과 ‘景’은 작자의 사유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7) 예를 들면 王維나 謝靈運의 산수시는 모두 자연경물을 묘사한 것이지만, 말하고 있는 것은 역시 ‘情’이다. 청대의 李漁는 “情爲主，景爲客”의 관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情’의 주도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8) 王國維, 『人間詞話新注』, 68쪽.

은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청대의 왕국유는 정경론을 경계론으로까지 발전시켜 이론적으로 승화시켰다.

위에서 말한 정경론 연구는 대부분 시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정경론이 문학에 끼친 영향은 시가라는 이 협소한 문학제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와 희곡, 고전소설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의 소설 창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고전소설 『홍루몽』을 예로 들면 정경론이 미친 영향은 심원하다. 소설에 나오는 시와 사만 보더라도 모두 정경융합의 걸작이다. 예를 들면 사상운의 “찬 못에 학 그림자 건너가고”거나, 임대옥의 “찬 달 속에 꽃 님을 물어준다”거나 얼마나 멋진 경물이고 얼마나 멋진 정서인가. 하지만 『홍루몽』에서 정경론이 더욱 많이 적용된 부분은 경물묘사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물은 자연경물을 포함하며 소설 인물들의 거주공간도 포함한다. 이러한 경물묘사는 모두 감정의 표현이며 감정이 경물을 보고 생겨난 것이다. 경물로 감정을 표현하고 나아가 정경융합의 경계까지 이르게 한다.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은 경물로 감정을 표현하는 탐색을 하였는바 전인들보다 한 걸음 나아가 전례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40년대 상해문단에서 장애령은 눈부신 빛을 뿌렸다. 그녀의 『전기』는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로부터 그녀는 중국 현대문학사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얻었는데, 이러한 장애령의 문학창작 성공은 『홍루몽』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크다.

장애령이 거주 공간 묘사방법도 정경론의 각도에서 분석하면 『홍루몽』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령이 생활한 시대와 조설근이 생활한 시대는 다르기에 두 소설의 거주공간도 똑 같을 수는 없으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 『홍루몽』과 장애령의 소설 『침향설：제1로향』의 거주공간 묘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창작과정에 정경론을 적용하여 『홍루몽』과 『침향설：제1로향』의 거주공간을 일종의 경물로 보고 이러한 경물이 텍스트로 형성되는 과정과 텍스트 속에서 일으키는 작용 및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21 장애령은 조설근과 마찬가지로 귀족출신이고 나중에는 몰락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실의로 가득하고 그들은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다.

창작론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는 작가가 정경융합에 필요한 감정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그들의 감정은 뼈아픈 감정으로써 아래 단계에 필요한 자연적인 경물을 만나고 이에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준비를 한다. 만일 이러한 감정적 준비가 미비하다면 경물을 보아도 감축이 없을 것이며 경물을 쓴다고 하여도 깊은 감정을 표달할 수 없으며 독자들도 공감할 수 없다.

22 조설근은 몰락한 후 북경에 옮겨와 생활하였다. 이 시기 그는 생활이 궁핍하여 글씨가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고 늘 술에 절어 있었다. 북경의 변화한 모습은 그의 처지와 너무나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 과거 금의옥식의 나날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옛 친지들의 얼굴과 옛 집의 뜰과 정원은 그의 눈앞에 선하게 떠올라 자꾸만 추억으로 그를 이끌어갔고 남몰래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조설근은 소설의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에 보았던 여자들이 생각났다…… 그녀들은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나의 재능이 부족으로 자기의 단점을 가리려고 그녀들까지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말은 현재 눈앞의 경물이 그로 하여금 과거의 경물을 추억하게 한 것이다. 즉 과거의 경물은 그의 창작동기를 유발한 것이다.

장애령의 몰락한 가정은 그녀로 하여금 커다란 커튼이 드리운 대저택과 고요한 대낮 그녀를 즐기던 아늑한 꿈을 추억하게 한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녀 스스로 호구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조설근과 달리 장애령이 눈여겨보았던 것은 멀리 과거의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과거의 인물들이었다.

23 조설근은 과거의 남경의 옛 저택을 자신의 작품에 옮겨놓았다. 이는 저자가 당시에 본 북경의 경물이 아니었다. 작가가 작품에 옮겨놓은 경물은 부귀한 경물이고 화려한 경물이다. 작품 속의 경물은 작가의 사유 활동을 거쳐 객관적인 경물에서 승격한 경물이다. 이러한 작품 속 경물은 단순히 남경의 옛 저택의 경물을

옮겨온 것이 아니라 작가의 회상을 통하여 취사선택을 한 경물이며 작가의 추억의 정, 애달픈 정, 비통한 정을 담아낸 경물이다. 『홍루몽』의 경물은 또한 대략적으로 그린 경물이 아니라 작품 속 인물이 매일 생활하는 구체적 공간이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친절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작품 속 인물과 같이 숨쉬고 운명을 같이하며 그 인물들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서로 다른 인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서로 다르며 그 내재적 뜻도 역시 다르다. 예로 임대옥이 거주하는 소상관은 청정하고 아늑하며 우아한 곳이다. 이는 임대옥의 외롭고 고고한 성격에 어울린다. 이환이 거주하는 도향촌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워 세상에 무심하며 안온한 이환의 성격과 어울린다. 『홍루몽』의 거주공간은 사실 서로 다른 여러 인물들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홍루몽』의 묘사하고 있는 경물은 작가의 사유 활동을 거쳐 만들어진 경물이며 이는 객관적 경물보다 승화된 경물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경물은 인물을 대변하며 인물 역시 경물을 대변한다. 이러한 경물묘사만이 감정의 매개체로서의 경물이다.

장애령은 조설근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거주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였다. 그녀가 묘사한 공간은 작품 인물의 운명과 함께 한다. 양부인이나 갈미룡이나 막론하고 그들의 거주공간은 그들 인물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신세계의 깊은 곳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애령은 조설근과는 달리 추억속의 경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해의 경물을 묘사하고 있다.

24 조설근이 경물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조설근 자신의 감수이며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물은 작품속의 인물의 성격을 그려내었고 이러한 인물은 또다시 조설근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저자는 작품의 여러 곳에서 “정”이란 글자를 많이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루몽』평점의 선두주자이자 조설근과 가까운 사이였던 지연재(脂硯齋)<sup>9)</sup>는 “저자는 천하의 사람들이 책 속의 인물들의 정 때문에 눈물을

9) 脂硯齋는 조설근의 삼촌이라는 설·가까운 친척이라는 설·아내라는 설 등이 있는데, 비록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조설근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홀리게 하려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으로부터 볼 수 있는바 작품 감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독자들이 작품을 통하여 느끼는 것도 역시 정입은 틀림없다.

장애령의 소설은 경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저자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장애령이 써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의 장난에 대한 슬픔이고 삶 속의 여러 가지 위협과 외로움과 불안함에 대한 쓸쓸한 감수였으며 잃어버린 가족의 파사로움에 대한 추억과 미련이었다.

### 3. 『紅樓夢』과 『沈香屑：第1廬香』의 거주 공간의 특징

본 문은 『홍루몽』과 『침향설：제1로향』에서 그려낸 경물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저자의 감정의 매개물로써 두 소설에는 여러 가지 경물-자연경관, 사계절 경물, 거주환경, 시대배경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경물은 저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다. 본문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공간이다. 『홍루몽』에서는 진가경과 임대옥의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침향설：제1로향』에서는 양부인과 갈미룡의 거주공간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경물을 통하여 두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나아가 인물의 성격 배후에 깔려있는 진한 슬픔을 파내고자 하였다.

『홍루몽』과 『침향설：제1로향』에서 묘사한 것은 고관귀족의 생활이며 저자가 한때 몸담고 있었던 환경이다. 하기에 저자가 이러한 경물을 묘사할 때 붓가는대로 썼지만 자연스러워 꾸며낸 느낌이 없다. 이러한 경물묘사를 왕국유는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경지라고 이름 하였다. 이 두 소설의 거주 공간 묘사의 특징은 아래의 세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 3.1 화려한 거주 공간

『홍루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귀족가정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거주환경은 대

우 화려하다. 가모의 거실을 살펴보면 소설은 처음 가부에 온 대옥의 눈을 통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대옥은 할멈의 손을 의지하여 수화문에 들어섰다. 양 권은 긴 회랑이었고 그 중앙에는 대청 복도가 있었으며 그 바닥에는 자단목 대리석 병풍이 있었다. 병풍을 돌아가니 자그마한 삼간 대청 방이 있었다. 대청 뒤켠에는 본체 뜰이 있었다. 정면에 다섯 칸짜리 상방이 있었는데 모두 그림과 조각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양켠에는 긴 회랑이 있었고 각 가지 앵무새장이 걸려 있었다.……<sup>10)</sup>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치한 정도를 얼추 알아볼 수 있다. 대청 양켠은 긴 회랑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입해도 걱정없다. 대청에는 서민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자단목 대리석 병풍이 놓여있고 도처의 회랑과 기둥은 모두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소일거리용으로 앵무새도 걸려있다.

가모뿐만 아니라 다른 주인들의 생활도 역시 사치하다. 유노파가 본 왕희봉의 방을 보자.

본체 계단에 올라서니 계집아이가 붉은 털 문발을 들어준다. 대청에 들어섰는데 어디선가 이름 모를 향기가 확 끼쳐 몸은 구름위에 둥둥 뜬 것 같다. 방안의 물건은 온통 반짝거리 눈이 어질어질하다. 유노파는 혀만 차면서 염불을 외 따름이었다.……유노파는 재작재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선가 키질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중간 대청의 기둥에 통 같은 것이 걸려있고 땅에는 저울추 같은 것이 드리워있었는데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땅”하는 소리가 나는데 커다란 종이 울리는 것 같아서 유노파는 놀라서 눈만 껌뻍거리고 있었다.……<sup>11)</sup>

왕희봉의 방에서도 우리는 사치를 보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부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보기 드문 시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희봉의 방이나 가모의 방이나 가보옥의 방이나 가부의 주인들의 방에는 모든 생활용품이 구전하며 화장품이나 장식품들로 가득하다. 방안의 꾸밈새는 품위 있

『홍루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귀족가정이다. 그러므로 대다수 거주환경은 대

10) 『紅樓夢』, 제3회.

11) 『紅樓夢』, 제6회.

고 우아하다. 『홍루몽』에서 근검하고 소박한 것은 미덕이 아니다.

『홍루몽』의 작자가 화려한 공간을 연출한 목적은 과거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억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화려한 배경으로 몰락후의 슬픔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는 것이다.

『침향설: 제1로향』에서도 역시 귀족가정의 사치한 공간을 묘사하였다. 이 공간은 배치가 정밀하여 조금도 빈틈이 없다. 서두에서 양씨 저택의 전체적인 구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미룡이 홍콩에 온지도 이미 2년이 되었다. 그러나 홍콩 산 위의 으리으리한 주택 구에는 너무 생소하였다. …… 뜰에는 잘 다듬은 상록수가 있었고 두 개의 화단도 있었는데 농염한 영국 장미가 피어있다. 짜임새도 빈틈없고 흐트러짐도 없다……<sup>12)</sup>

산허리의 이 집은 유선형 기하도안처럼 배치되어 모던한 영화관의 느낌을 주었다. ……집 주위에는 넓은 회랑으로 둘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타일이 깔려있었으며 두서너 장 높이의 둥근 흰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 ……<sup>13)</sup>

양씨 저택은 홍콩 부자동네에 있었기에 아주 화려하다. 뜨락은 잘 꾸며졌고 잘 가꾸었다. 건축도 으리으리하고 웅장하다.

이는 『홍루몽』에서 묘사한 공간과 마찬가지로 화려한데 여기서도 『홍루몽』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또 보다시피 장애령이 화려한 공간을 묘사한 것은 화려한 인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침향설: 제1로향』의 인물인 양부인과 미룡, 그리고 조지는 보기에는 화려해보이나 기실 모두 허망한 영혼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변태적인 인생들이다. 작자가 이 인물들의 공간을 그린 것은 그들에 대한 무가내한 연민을 표현한 것이다.

### 3.2 밀폐/반개방적 공간

조설근 소설의 공간에는 남자들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인바 가족 내 남자들도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장애령의 소설에 와서는 이 공간은 이미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구습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홍루몽』에는 여인네들이 병이 나 의사를 청하는 장면이 아주 많다. 하지만 당시 여인들은 얼굴을 내놓지 못하였으므로 의사가 진찰하는 장면도 아주 특이하다. 아래는 청문의 병을 진찰하는 장면이다.

한참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 알려왔다: “의사가 왔어요.”보옥은 책장 뒤에 피했다. 두세 명 뒷문에 있던 할멈들이 태의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곳에 있던 시녀들은 모두 자리를 피했다. 두세 명 할멈들이 난각 위의 붉은 휘장을 내리고 손만 내밀게 하였다. 태의는 그 손가락 두 개가 손톱이 두세 치나 되고 봉선화로 빨갱게 물들인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돌려버렸다. 할멈이 와서 바빠 그 이에 손수건을 덮었다. ……<sup>14)</sup>

여기서 볼 수 있는바 의사가 진찰할 때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낼 수 없으며 진맥할 때 의사도 여인의 손을 보아서는 안되고 붉은 천으로 가려야 한다. 일개 하녀가 이러할진대 그 주인 여자들이야 외계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겠는가? 대관원에 사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외계와 접촉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영춘의 시녀 사기만이 예외였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녀는 규범을 어긴 죄로 죽어야만 하였다.

임대옥의 비극도 모종 의미에서 말하면 이러한 폐쇄적 환경으로 말미암은 혼인자주권 부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계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결혼상대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은 바로 비극의 한 원인이다. 대관원의 여아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혼인자주권이 없는 자체 역시 비극이다. 하여 대관원의 여아들은 모두 총명하고 생활도 사치하지만 그들은 모두 새장안의 새로 비극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12)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3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13)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4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14) 『紅樓夢』 제51회.

장애령이 그린 양씨 저택은 이미 이러한 금기가 소실되었다. 이 공간은 서양적인 냄새를 질게 풍기지만 중국적인 것을 소품정도로 구사한 공간이다. 이것은 작품의 시대성과 연관된다. 『침향설：제1로향』이 묘사한 시대는 이미 청대가 아니다. 작품 인물도 청대의 규방여인들이 아니었으므로 그녀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역시 『홍루몽』의 공간과 동일한 밀폐된 공간일 수 없다. 이 공간은 많은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공간이며 특히 남녀가 서로 즐기는 공간이다. 아래의 묘사에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두 석장 높이의 웅장한 등근 흰 기둥이 죽 늘어섰는데 이는 미국 남부의 초기 건축의 유풍이다. 회랑의 유리문을 지나 들어가면 거실인데 안에는 입체적 서구식 배치였지만 몇 가지는 대범하고 속되지 않은 중국 물건이 장식되어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비취 코담배대와 상아 관음상이 놓여있었다.....<sup>15)</sup>

『홍루몽』과 마찬가지로 장애령은 이 집을 통하여 주인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침향설：제1로향』이 표현하려는 것은 빠져거리는 인간들의 삶과 변태적인 성격이었다. 이 집주인 양부인은 청춘과 미모를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바꿔왔다. 젊은 아가씨와 백발의 할아버지의 결혼, 얼마나 불협화음이었을까? 그녀의 갖가지 욕망은 그 할아버지의 몸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니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공허한 영혼을 달랠다. 이 공간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미룡을 유혹하여 빠져오게 하였고 그녀가 건잡을 수 없이 이 공간에 빠져들게 하고 몰락하게 한다.

### 3.3 여성화된 공간

『홍루몽』의 인물은 주로 여인들이다. 그러므로 여성적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소설의 여성적 특징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보고자 한다.

#### 1) 향기 있는 공간

『홍루몽』의 인물들은 귀족가정의 여인들이므로 그녀들은 화장품을 쓴다. 소설 속의 대부분 여인들은 늙은 할멈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한다. 하여 보옥의 방에는 시녀들이 쓰는 많은 화장품이 있다. 그녀들이 쓰는 화장품은 아주 엄선된 것이다. 그녀들은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을 쓰지 않으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며 가끔 자체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으로 『홍루몽』의 인물들의 옷에는 모두 향을 썬거나 혹은 몸에 향주머니를 달고 다닌다. 하여 그녀들의 방안에는 옷 향기도 있다.

또한 뜨락에 많은 화초를 심는 연고로 꽃향기도 방안에 풍겨온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바 대관원의 여인들의 몸에서는 향기가 풍긴다. 하지만 그녀들 신분과 기호가 다름에 따라 그녀들이 쓰는 향도 각기 다르다. 각각의 인물들의 몸에서는 각기 다른 향기가 풍기며 그녀들의 성격도 각각이다.

장애령의 공간도 역시 여인들의 공간이므로 여러 가지 향기가 있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이 속에는 화장품의 향기도 있고 옷 향기도 있으며 화원의 꽃향기도 있다. 하지만 이곳의 향기는 『홍루몽』의 향기보다 훨씬 강렬한 향기이다.

#### 2) 색채가 있는 공간

『홍루몽』의 색채는 현란하다. 이러한 색채는 귀족가정의 여인들의 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홍루몽』의 현란한 색채는 작품 인물의 운명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 작품의 비극성을 돋보여 주고 있다.

장애령의 소설공간도 현란하다. 하지만 이곳의 색채는 조화롭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강렬한 자극을 주는 색채이다. 이러한 부조화를 통하여 인물의 변태적 성격을 표현하며 양부인의 운명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다.

#### 3) 소리의 공간

15)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4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대관원이라는 공간에는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 찼다. 즐거운 웃음소리도 있고 슬픈 울음소리도 있으며 아기자기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도 있고 남의 뒷공문을 하는 소리도 들리며 살살 다른 사람을 달래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소설전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환락의 분위기이지만 차츰 뒤로 가면서 음울하고 슬픈 소리가 많아진다. 이는 이 대 가족의 멸망을 징조를 예언하며 작품인물의 비극적 운명도 예시한다.

장애령의 소설공간에도 여러 가지 소리로 분주하다. 이곳의 소리는 대관원의 소리보다 요란하고 어지럽다. 이는 작품인물 양부인과 갈미룡의 자극적인 생활과 난잡한 연애와 연관된다.

### 3.4 허구적 공간, 시적인 공간/물질화된 공간

『홍루몽』은 낭만주의와 현실주의가 완벽하게 결합된 예술작품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물은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중 일부분의 경물은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경물이다. 가보옥이 꿈에 놀다운 태허환경은 허망한 경물이며 객관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홍루몽』이 묘사한 실제적인 경물도 모두 몽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시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관원의 경물을 실제적 경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기실 허망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홍루몽』 제17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보옥은 이를 보고 속에 느끼는 바가 있어 꿈꿈이 생각해본다.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막상 어느 때 일인지 떠오르지는 않는다.……16)

보옥이 여기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 경물은 바로 꿈에 태허환경에서 보았던 경물이다. 저자는 아리송하게 이 배경의 허구성과 몽환성을 귀뜸하고 있다.

16) 『紅樓夢』 제17회.

대관원의 다른 경물을 보더라도 모두 정교함의 극치이다. 하여 독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그림을 보고 있는 듯, 꿈을 꾸는 듯한 감을 느끼는데 이는 작품 경물이 인공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작품 속 경물은 시적인 경물이고 몽환적 경물이다. 작품의 인물은 시와 같고 꿈같고 그림 같은 경물에 녹아들어 사람과 경물이 동일시를 이룬다.

장애령의 공간과 『홍루몽』의 공간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홍루몽』이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장애령의 소설공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애령의 소설공간도 아주 화려하다. 하지만 이러한 호화로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돈의 위력이다. 갖춰진 기물들은 모두 비싼 것이고 품위있는 것이지만 또한 조화롭지 못하다. 바로 소설이 그리고 있는 인물처럼 문화적인 수양이 결여되어 경박함과 천박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처에 그 흔적을 남긴다. 그러하기에 『홍루몽』의 여아들은 모두 시인들이지만 『침향설：제1로향』의 여인들은 돈에 찌든 고급 창기들이다. 『홍루몽』의 여아들은 음풍영월하지만 『침향설：제1로향』의 여인들은 춤판에서 연회장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결혼홍보에 혈안이 되었다. 『홍루몽』의 여아들은 얌전하고 우아하지만 『침향설：제1로향』의 여인들은 공공연히 남자들을 낚는다.

아래에 우리는 진가경과 양부인의 공간을 비교해보고 임대옥과 갈미룡의 공간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 3.5 진가경과 양부인의 공간—음탕함

『홍루몽』에서 진가경이 나오는 대목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아주 선명하다. 작자는 바로 그녀의 거주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이 인물을 살아 숨쉬게 하였다.

진가경의 거주공간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 1) 향기가 있는 공간

진가경의 방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향기가 있다. 제5회에 진가경의 방에 대한 묘사가 있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어느새 진씨의 침실까지 왔다. 방에 들어서자 은은하게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다. 보옥은 어느새 눈이 풀리고 노곤해지면서 연신 “향이 참 좋아요”라고 하였다.<sup>17)</sup>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보통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을 녹작지근하게 하는 향기이며 남자를 유혹하는 향기이다. 이 향기에서도 우리는 진가경의 음탕한 면을 보아 낼 수 있다.

### 2) 현란한 공간

진가경의 방안의 기물은 모두 색채가 눈부시고 눈앞이 어질어질하게 한다.

방에 들어가 보니 당백호가 그린 『해당춘수도』가 걸려있는데 양옆에는 송대의 학사 진태허가 쓴 대련이 붙어있다. 그 대련에 이르기를: 싸늘한 꿈은 봄추위 때문이고 풍겨오는 향기는 술 향기로구나.

탁자에는 무촉천이 화장할 때 썼다는 거울이 놓여있고 한옆에는 조비연이 춤을 췄다는 금접시가 있었으며 그 접시에는 안록산이 양귀비에게 던져 짓가슴을 상하게 했다는 모과가 놓여있었다. 한 옆에는 수창공주가 함장전에서 누웠다는 침대가 놓였고 수창공주가 몸소 만들었다는 연주회장이 걸려 있었으며 서시가 직접 빨았다는 비단이불이 펴있었고 홍량이 안아온 원앙베개가 있었다.<sup>18)</sup>

이 공간에 배치된 모든 기물은 저자가 중국 고전소설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과장수법으로 가장 현란한 색채를 그려내었다. 당백호의 그림은 희세명품이며 무촉천의 거울도 역시 귀중품이다. 기타의 물건도 모두 보물급에 해당한다.

17) 『紅樓夢』 제5회.  
18) 『紅樓夢』 제5회.

저자는 여기서 단순히 사치한 것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음란함까지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해당춘수도』는 남녀의 염정을 은유한 그림이고 조비연은 색으로 나라를 망친 음녀이며 안록산이 던진 모과는 양귀비의 짓가슴을 명중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남녀의 음란한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이 공간은 음란한 공간이며 진가경도 음란한 여자이다.

### 3) 고양이가 울부짖는 공간

제5회에는 이런 묘사가 있다.

진씨는 바깥에서 계집애들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싸우지 못하게 하라고 이르고 있었다.<sup>19)</sup>

고양이와 강아지는 서로 다른 유형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싸우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며 상례에 어긋난다. 이것은 진가경이 보옥을 꼬드기고 시아버지와 간통하는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진가경은 이 귀족가정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대로 누리고 음란할 대로 음란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로도 비참하여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이는 그녀 한 사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몰락되어갈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가경의 거실의 화려함은 오히려 비애를 느끼게 한다.

양부인의 거주공간도 『홍루몽』의 거주공간과 마찬가지로 음탕하다. 양부인의 거주공간도 향기, 색채, 소리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 1) 향기가 있는 공간

.....그때 마작판은 이미 끝났다. 거실에는 담배연기, 꽃향기, 사람냄새로 혼탁하

19) 『紅樓夢』 제5회.



였다. 니얼은 어린 하녀들이 과일쟁반을 치우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양부인은 신발을 벗고 소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티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20)

양부인의 방안에는 각 가지 냄새로 가득하다. 꽃향기, 사람냄새, 담배냄새까지도 우선 밝히는바 이 방안의 냄새가 양부인 한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곳의 냄새는 양부인의 냄새, 손님들의 냄새로 범벅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 손님들도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녀가 섞여 있는 것이다. 방안의 냄새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바 양부인과 손님들은 밤새워 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댄 것이다. 양부인의 방은 사교의 공간이며 남자들을 불러 모으는 공간이며 지저분한 공간이다. 이러한 냄새로부터 알 수 있는바 양부인의 인생패락은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방안에는 살구씨 로션향과 비슷한 매니큐어의 향이 진동하고 있었다. 양부인은 바로 매니큐어를 바르고나서 두 손을 짹 펴서 말리고 있었다.……21)

양부인이 사용하는 향기는 아주 강렬한 것인데 그 목적은 더 많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는 공공연히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꼬드기는데 조금도 거칠 것 없다.

## 2) 현란한 공간

미룡이 머리를 들어보니 남색 자기화분에 선인장이 보였는데 꽃망울을 막 피우려고 하였다. 그 질푸른 두꺼운 잎은 사처로 촉수를 뻗치는데 꼭대기의 붉은 부분은 튀어나온 뱀의 혀와 흡사하였다.22)

양부인의 방안에는 강렬한 색깔들로 가득 찼다. 꽃병은 파랗다 못해 눈이 시고

선인장의 잎은 검푸르며 선인장 꽃봉오리도 빨갭게 눈을 자극한다. 이러한 강렬한 색채는 양부인의 강렬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자그마한 서재였다. 중국식으로 꾸몄는데 흰 벽에 바닥에는 석청색 카펫을 깔았다. 금칠한 탁자며 붉은 비단 의자등받이며 붉은 비단 커튼은 미룡이 세대 사람들은 이불 거죽으로 된 것을 본 외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바닥에는 정타이란 네모 꽃병을 놓고 흰 색의 작은 꽃들을 꽂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만향옥인 것 같지만 화남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판빠꾸하인 줄을 안다.……23)

이 방은 고색창연하며 화려하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인물은 행실이 단정치 못한 양부인이다. 하여 이 방안의 분위기도 어딘가 어색하다. 즉 백발의 할아버지의 넷째 첩인 양부인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 3) 음악소리, 남녀의 수작하는 소리, 욕설

미룡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아래에서는 한창 식사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한창 느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24)

이 공간에서는 늘 연회가 벌어지고 남녀는 함께 춤을 추고 마작을 놀며 서로 유혹한다.

미룡을 몸을 굽혀 주머니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여인의 매끄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다: “니얼이 말하는데 오늘 온분들은 모두 연세가 많은 나리님들과 마님들이래. 나리님들은 나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님들은 마님답지 않고 아씨들 같더래!”25)

이 공간에서 울리는 여인들의 목소리는 모두 달콤하고 매끄러운 목소리로써 남자들을 유혹하는 무기이다.

20)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7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21)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46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22)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0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23)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0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24)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6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25)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6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티티는 미룡이 온 걸 보고 양부인의 욕설이 끝난 줄 알고 찬합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다. 양부인은 껍 소리 질렀다: “거기 못 서!”……

“……네년이 이렇게 싸구려였어,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말아야! 타고난 종년이야!” 티티는 필경 나이가 어린지라 미룡의 앞에서 너무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역시 얼굴을 구겨가지고 냉소를 지었다: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게 아니라 그가 질 싫다고 해요. 제가 종년이 아니라고 해도 그는 감히 건드리려 하지 않거든요.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양부인은 텅기듯 티티의 귀쌈을 갈졌다. 티티도 질세라 아예 울고불고 난리였다. “또 누가 감히 당신앞에서 농간하겠어요? 초우씨택 기사부터 그 맥의 늙은이고 아이고 당신이 모두 도말은 것 아녜요, 그 맥 일곱째 첩이 낳은 갓난애도 당신은 벌써 눈독을 들였을걸요. 기사까지도 가만 놔두지 않으면서. 날 때려봐, 때려보란 말이야! 하지만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요!”……

티티는 이때 멍해졌다. 양부인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멍해있다가 곧 발을 구르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다.<sup>26)</sup>

이 공간에서는 주인이 하녀를 때리고 하녀는 대꾸질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남자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

양부인의 공간을 진가경의 공간과 비교하여 보면 이곳에서는 온갖 욕망이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양부인의 이러한 대담한 욕망의 뒤전에는 흘러간 젊은 세월에 대한 미련과 그것을 보상 받으려는 심리가 깔려있다. 갈미룡의 말에 따르면 “여자들은 너무 불쌍해.” 이것은 역시 장애력이 귀족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이라는 물질만능의 세계에서 아등바등하는 비애와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 3.6 임대옥의 공간—우아함

임대옥의 공간도 화려하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은 보옥이나 진가경의 화려함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임대옥의 방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색, 향기, 소리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1) 임대옥의 방안의 향기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다.

a) 임대옥의 방안에는 해가 가도록 약 냄새가 진동한다. 그녀는 태어나서부터 체질이 허약하였으므로 조금만 더위도 혹은 조금만 추위도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병으로 골골한다. 화만 내도 며칠 동안 꼼짝없이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 하여 그녀의 방안에서는 늘 약을 달이며 방안과 사람의 몸에는 약냄새가 배어있다. 아래 대옥의 말을 들어보자.

“언닌 나보고 연와죽을 먹으라고 하는데 별로 요긴한 것도 아닌데요. 의사를 청하고 약을 달이고 날이면 날마다 인삼이다 육계다 하여 부산을 떠는데...”<sup>27)</sup>

대옥이 말하였다: “진 약을 달고 살아서 약 냄새가 몸에 배었어요. 무슨 꽃 향기가 어울린다고? 꽃이 점점 시들거야. 이 방안에 약 냄새만 나니 꽃 향기를 버려요. 오빠가 가져가면 차리리 이 꽃도 깨끗해지고 잡 냄새에 절지 않을거야.”<sup>28)</sup>

여기에서도 우리는 임대옥은 병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지만 대옥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울적해서 병이 생겼고 수심에 잠기는 것이다.

#### b) 임대옥의 방에는 책이 아주 많다. 제16회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다.

대옥은 많은 책도 가져왔다. 방을 청소하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였다. 또 종이나 붓을 보거나 영춘이 보옥에게 나눠 주었다.

대옥이 말하였다. “……아가씨가 맘먹고 배우려면 내가 『왕마혈문집』을 줄게. 먼저 오언율시 백수는 잘 읽어보고 다 이해되면 다시 두보의 칠언율시 백 이십수를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백의 칠언절구도 일이백수 읽어요. 머리에 이 세 사람의 시가 있으면 그 다음 도원명, 위응물, 유우석, 사령운, 원적, 유신, 포조 등 사람의 시도 보면 되지요. 아가씨는 총명한 사람이니 일 년도 못 가서 시인이 될 거야.”<sup>29)</sup>

여기서도 우리는 대옥이 책을 즐겨보며 많은 책을 보았고 역대의 명인의 문학

26)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9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9월.

27) 『紅樓夢』 제52회.

28) 『紅樓夢』 제52회.

29) 『紅樓夢』 제58회.

작품을 거의 다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옥이 책을 읽은 이유는 아마도 외로움과 고독 때문이었으리라. 대옥은 책을 보고 시를 짓는 것이 전부의 생활이며 이로써 율적인 심기를 달래었다.

c) 임대옥은 옷에 향을 쏘인다. 제 19회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보옥은 이 말을 듣더니 뼈가 나른해지는 향기가 대옥의 소매에서 은은하게 나는 것을 알아챘다.<sup>30)</sup>

대옥이 옷에 향을 쏘는 것은 청결함을 위해서이다. 대옥은 친척집에 얹혀사는 신세라 언제나 조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도도하고 외롭다.

2) 임대옥의 거주공간의 색채는 비교적 담담하며 봉저나 보옥의 방처럼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는 우아하고 친박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마당에 들어서니 땅에는 대나무 그림자가 얼크러지고 푸른 이끼가 얼룩져 있었다.....<sup>31)</sup>

갑자기 머리를 들어보니 앞에는 새하얀 토담이 둘러있고 울창한 대숲사이로 사랑채 몇 칸이 보였다..... 대숲을 지나서 뒤뜰인데 배나무 몇 그루가 있고 잎이 넓은 파초도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칸짜리 작은 정자도 있었다. 뒤뜰의 창 아래에 작은 틈을 내어 샘물을 끌어들였고 도랑을 파서 마당에 끌어들이고 계단을 감돌아 앞마당에 까지 나가 참대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였다.<sup>32)</sup>

임대옥의 공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마당에 심은 대나무이다. 그 대나무는 상비죽인데 전하는데 따르면 아황의 눈물이 뿌려져 얼룩무늬가 생겼다고 한다. 이 대나무들은 임대옥의 민감하고 수심에 찬 성격을 상징한다. 다른 한편 중국의 문인사회에서 대나무는 문인들의 고상한 품격을 상징한다. 청대의 정판교는 대나

30) 『紅樓夢』 제19회.  
31) 『紅樓夢』 제35회.  
32) 『紅樓夢』 제17회.

무그림으로 명성을 날렸다. 임대옥의 공간에 대나무를 설정한 것은 임대옥이 갖고 있는 문인적인 청고한 기질을 상징하는 것이다.

3) 임대옥의 공간은 비록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지만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우리는 임대옥의 공간의 소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갑자기 회랑에 앉아있던 앵무새가 대옥이 오는 것을 보더니 “쩍”하고 날아 내렸다. 놀란 대옥은 “죽으려고 걱정했어, 나한테 또 먼지만 날렸네!” 그 앵무새는 다시 새장에 날아가 앉으며 소리질렀다: “설연아 빨리 문발을 걸어라. 아가씨가 돌아왔어!” 대옥은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새장을 붙들고 물었다: “모이는 컷느냐?” 그 앵무새는 길게 탄식하더니 대옥이 평소에 시를 읊던 대로 읊었다: “오늘 내가 꽃을 물어준다고 사람들이 웃지만 언젠가 나를 물어줄 이 누군가.” 대옥과 자건은 이를 듣고 모두 웃어버렸다. 자건은 웃으면서 말했다: “평소에 아가씨가 외우던 것이 잦아요. 저 새가 어떻게 기억했지!”<sup>33)</sup>

재녀인 대옥이가 소상관에서 늘 하는 일이라야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시를 읊는 것이었다. 하여 그녀가 기르는 앵무새마저도 그녀의 시를 한 구절 정도는 외우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책을 읽든지, 시를 쓰든지, 시를 읊든지, 시를 가르치든지 모두 부모없는 대옥의 외로운 처지와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옥은 정 때문에 병 때문에 지어낸 시도 모두 슬프다. 그 속사정을 모르는 앵무새는 자주 듣다보니 몇 마디 외우게 되었다. 이 앵무새의 읊조림은 처량한 분위지만 더하여 준다.

처량하기에 이 공간에는 늘 탄식소리, 울음소리, 바람소리, 비소리가 들린다.

대옥은 죽을 몇 모금 먹고는 침대에 드러누웠다. 헌데 해가 지기도전에 하늘이 흐려지더니 주룩주룩 비가 오는 것이다. 가을비는 끊이지 않고 음산하게 오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흐렸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대나무 끝에 떨어지며 더욱 처량하다. 보체는 못 올 것이다. 그래서 등불아래서 손 가는데로 책을 집어드니 『악부잡고』였는데 그 속에는 『추규원』, 『별리원』 등 사가 있었다. 대옥은

33) 『紅樓夢』 제35회.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 몇 구절 읊어『대별리』한 수를 지었다. 『춘강화월야』의 격을 모방하여 사 이름을 『가을 창가에서 비바람 부는 저녁에』라고 달았다.....34)

임대옥은 재능이 뛰어난 아름다운 아가씨지만 이런 음울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또 언제나 조심해야 하며 의지할데가 없었으니 그녀의 운명도 비참한 것이다. 그녀의 공간은 그녀의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

### 3.7 갈미룡의 거주공간

#### 1) 미룡의 방의 향기

옷 열구리에는 백색 비단향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라이라크 꽃가루가 가득 차서 옷장안에는 향내로 가득하다.35)

이 옷장안의 향기는 사람을 흥미하게 만들며 미룡이 타락으로 나아가게 한다.

파초, 옥란화, 바나나 나무, 장뇌나무, 창포, 봉미초, 상아홍, 종려, 갈대, 탄바꾸 등 화초는 너무 번식하여 살기등등해 보였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은은하게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36)

베란다 밖의 이러한 화초는 모두 향이 짙어 미룡을 자극하여 양부인처럼 남자를 낚는 대열에 합류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남자를 낚는 이런 일들이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2) 강렬한 색채

34) 『紅樓夢』 제45회.

35)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7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年9月.

36)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32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年9月.

미룡은 트렁크를 열고 옷을 서랍에 넣으려 하였다. 벽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옷이 가득 걸려있어 눈부시었다.....37)

그 옷장은 벽에 있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강렬한 전등을 장치하여 밤낮 켜놓고 옷들을 말려 곰팡이 끼지 않도록 하였다.38)

미룡의 방안의 색채는 자극적이다. 모든 옷은 금빛으로 번쩍이고 옷을 비추는 광선도 강렬하다. 이 모든 것은 금전의 강렬한 유혹이 미룡을 움찔달짝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 3) 여기의 소리도 유혹적이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매끄럽고 달콤한 웃음소리다.....39)

미룡이 윗 층으로 올라갈 때 아래에서는 한창 식사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룡이 있는 방은 마치 작은 쪽배마냥 그 음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 물 낚은 홍사 벽등은 마치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았고 사람도 하늘하늘 날리는 듯 상상한다.40)

이 방은 조용히 독서할 공간이 아니고 소란속의 공간이다. 아래층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미룡을 방해한다. 아래층 남녀들의 공공연한 애정행각은 미룡을 자극하고 유혹하며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한다.

이 공간은 자극으로 가득 찼고 유혹으로 가득 차 미룡을 타락의 심연으로 이끌어 간다. 갈미룡이란 인물을 통하여 장애력이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은 갈미룡과 같은 구식 가정에서 나온 여자들이 금전의 유혹아래 감정세계는 의지할 곳이 없

37)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33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年9月.

38)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33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年9月.

39)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7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年9月.

40)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16쪽, 海南: 海南出版社, 1995年9月.

며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어쩔 수 없이 타락을 향해 걸어가며 점점 깊이 빠져들어 헤어 나올 수 없게 되는데 대한 연민의 정과 슬픈 감정이다.

#### 4. 결론

4.1 본문은 창작과정에 착안하여 중국의 핵심적 고전 문론인 정경론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즉 창작과정에 대하여 말할 때 창작 전 단계에 반드시 감정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또한 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경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 작자의 일련의 사유 활동을 통하여 ‘경물’을 재구성하고 이 재구성된 ‘경물’을 통하여 작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4.2 조설근과 장애령은 모두 창작 전 단계에 감정적 준비가 있었으며 경물을 보고 감정이 솟구쳤고 또한 경물을 빌어 감정을 표출하였다.

4.3 본문은 조설근과 장애령의 소설의 ‘경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홍루몽』의 진가경, 임대옥의 거주공간과 『침향설: 제1로향』의 양부인, 갈미룡의 거주공간은 각각의 인물의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진가경과 양부인의 거주공간은 음란한 공간이다. 하지만 진가경의 거주공간은 보일 듯 말 듯 그 음란함을 표현하였지만 양부인의 거주공간은 공공연한 강렬한 욕망의 배설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임대옥과 갈미룡도 모두 지식인 여성이다. 하지만 임대옥의 거주공간은 우아하고 이늑한바 임대옥의 도도하고 외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갈미룡은 본래는 삶에 적극적이고 순결한 여자였지만 거주공간이 여러 가지 유혹에 둘러싸인 고로 그녀는 차츰 타락하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

4.4 이들의 거주하는 공간의 성격은 모두 다르며 이 거주공간을 통하여 보여진 인물의 성격도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이러한 거주공간의 묘사를 통하여 인물을 부각하고 이러한 인물을 통하여 저자의 슬프고 실의에 빠진 심정과 어쩔 수 없는 당혹감과 미련을 표현한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 參考文獻 >

胡建次, 『中國古代文論中的情景論』, 新疆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6년 5월, 제34권 제3기.

田 玲, 『中國的情景交融與西方的移情辨析』, 湖北教育學院學報, 2005년 7월, 제22권 제4기.

郁 源, 『論情景組合』, 東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년 제6권 제3기.

張炳煊, 『意境產生之緣由考』,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007년 1월 제60권 제1기.

『紅樓夢』, 哈爾濱: 花山文藝出版社, 1992년 12월 제1판.

『張愛玲小說全集』 제3권., 『沉香屑: 第一爐香』, 海南: 海南出版社, 1995년 9월 제1판.

#### < 中文提要 >

本文從情景論談到其在詩歌創作過程中的應用, 再談其在小說創作中的應用, 然後依此具體分析中國古典小說『紅樓夢』里的秦可卿和林黛玉的居住空間以及張愛玲的小說『沉香屑: 第一爐香』里的梁太太和葛薇龍的居住空間. 這兩部小說里居住空間就表現了人物的性格特點, 人物又表現了作者的悲傷的感情.

關鍵詞: 情景論、創作過程、備情、備景、借景、露情、悲傷的感情